

아낌없이 기증하는 세계 최다 종수 수집가

박물관 세워 지역사회 자산으로 지구상 광물·패류 관련 책도 총망라



한국광물유성연구소 김동성(70) 박사는 수집가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집가와와는 다르다. 수집을 위해 바친 돈과 열정 그리고 시간 때문이다. 지난 51년 동안 수집해 온 분야가 42가지다. 화폐 1만 2,000여 점, 보석 25만 7,000여 점, 운석 3만 점, 어패류 10만여 점 등등 총 120만 점이 넘고 이를 위해 다녀온 나라만 해도 178개국이나 된다.

120퍼센트 세금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에 5만 개씩, 1년에 많게는 50만 개씩 들여온 적도 있었다. 15년 전 함량 높은 금을 채취하기 위해 들른 필리핀 바기오금광에서는 늪에 빠져 죽을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산호로 된 모래를 수집하기 위해(해수 모래도 그의 수집품목 중의 하나다) 찾아간 남태평양 통가에서는 배가 뒤집혀 바다 한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다.

조개를 모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김 박사를 만난 기네스북 영국 본부장마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김 박사가 모은 10만 2,000점이라는 조개뿐만 아니라 수집품목 42종 그 자체가 기

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 중 12가지가 자연사와 관련된 것이다.

《원색 세계의 패류 도감》, 《운석도감》 등 출간

또한 김 박사는 단지 모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들을 분류해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88년 20여 년간 모은 패류를 정리한 《원색 세계의 패류 도감》을 출간했고, 지난해에는 24년 동안 모은 운석 600여 종의 3만여 점을 정리해 미국 템플대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딸 김지현(미국 보석감정사) 씨와 함께 총 672종의 운석 사진이 수록된 《운석도감》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는 세계 최다 종수로 지금도 미국과 독일에서 도감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들어온다.

현재 그는 세계광물도감, 세계보석도감, 공룡도감 등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해 하나하나 도감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출간할 예정인 <광물백화도감>에 수록될 광물은 총 3,500여 종으로 이 역시 세계 최다 종수다.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제가 수집하려고 하는 분야의 책부터 삽니다. 광물, 패류에 관련된 책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쌓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류를 하고 잘 정리해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제 김 박사는 KBS <진품명품>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웬만한 교수보다 권위 있는 광물전문가로 손꼽힌다.

‘외국 가면 수집품 관련 책부터 먼저 사’… 학문적 활용 위해 체계적 분류도

김 박사의 수집벽은 개인차원이 아닌, 사회를 향하고 있다. 1988년 기자회견을 가져 정부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던 김 소장은 1990년대 국내에 박물관 건립 붐이 일기 시작하자 두손 두발 다 걷고 나섰다. 그때 그는 이미 미국 50개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모두 시찰하고 올 만큼 준비된 박물관 전문가였다. 김 박사는 국내 박물관 건립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수집품을 기증했다. 익산 보석박

물관을 비롯해 부산 시립해양박물관, 목포 향토문화관, 청주 우암어린이회관 박물관, 대구 어린이회관 전시관 등 지금까지 기증한 곳이 18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겸임교수로 있는 한양대학교 안양캠퍼스에 자연사 자료를 기증하고 박물관을 만들어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한번은 괴뢰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저 평범한 그 집을 한 해에 300만 명은 족히 다녀간다더군요. 유럽의 예술가들은 이처럼 자신이 죽으면 그 집을 시나 지치단체에 기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공공의 재산이 되는 거죠.”

수집 인생 초창기인 50년대 말, 어느날 인사동에 갔을 때였다. 한 아이가 오래된 화폐를 가지고 오더니 2만 원에 바뀌는 것이었다. 지금 돈가치로 하면 족히 1억 원은 되는 액수였다.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아이의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수집가였다. 그가 죽자 그의 며느리는 그동안 시아버지의 수집벽으로 곤궁해진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수집품을 하나둘 팔고 있었다. 수집하러 다니다보면 수도 없이 겪는 일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김 박사는 다짐을 했다. ‘수집으로 끝낼 게 아니라 반드시 박물관을 만들자. 그리고 그 유럽에서처럼 사회에 환원해 그 지역의 재산이 되도록 하자.’

‘수집품은 사회 공동의 자산… 박물관 늘려야’

사람들은 그의 수집품을 보며 대단한 상속자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고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집중력과 성취욕이 있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는 그의 가훈이기도 하다. 1955년 경희대 전신인 서울동양약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고향인 충주로 내려가 25살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지금의 박사라는 호칭은 그때부터 따라다녔다.

하지만 정치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컸다. 그래서 걸은 길이 사업가의 길이다. 양조장을 시작으로 식품공장, 사이다공장, 통조림공장을 운영했고 이때 돈을 모아 산 땅 31만평은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집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60여 평의 한국광물유성연구소. 김 박사는 다른 연구자를 위해 이곳에서 그동안 모은 수집품을 분류한다.



김동섭 박사는 672종이 넘는 운석시진을 수록한 《운석도감》을 내기도 했다.

수집은 도를 지나치지 않았었다. 그가 자연사에 애착을 갖게 되고 또 수집이 국제적인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떠밀리다시피 통일주체 대의원에 당선되고 난 후부터였다.

“덕분에 교민을 위한 강연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갈 일이 많아졌는데 그곳에 가면 대사나 영사관들이 하나같이 현지 자연사박물관을 소개 해주더군요.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자연사박물관을 보면서 느끼게 있었습니다. 자연사에 대한 연구가 튼튼해야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또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구요. 그때부터 광물과 운석, 화석 등 자연사 유물에 관심을 갖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도에 한국인의 자취 남기겠다’ … 양주 보석종합대학 초대총장 내정

얼마 전 중국 양주에 건립 예정인 보석종합대학에 초대총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양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도 신라와 같은 곳으로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세계 최대의 보석도시로 탈바꿈시키려고 준비 중이고 그 일환으로 보석종합대학을 설립 중에 있다. 김 박사는 이를 수락하고 동시에 새로 지어질 보석박물관에 자신의 수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남의 나라에 그 비싼 보석을 기증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김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이야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지만 역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보내야 하는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언제 미국을 앞지르는 강대국이 될지 모르죠. 전 그러한 중국에 한국인의 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초대총장 자리를 수락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보석도시의 보석종합대학에 한국인이 초대총장이었고, 한국인이 기증한 보석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 박사는 박물관에 ‘김동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상도 세우겠다는 양주 측의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초대총장도 딱 1년만 하기로 했고 월급과 판공비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단지 한 사람 한국인의 도움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취재·사진 신동섭 기자